

03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 및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미영**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기존 이론에서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지각된 위험과 코로나19 예방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예방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위험은 자기효능감에 그리고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은 각각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은 예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해주며, 이로써 사회신뢰와 집단 효능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은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예방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이 어떻게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며,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예방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실무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투고일 : 2022년 08월 17일
▶ 심사일 : 2022년 08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3일

주제어 : 코로나19, 사회신뢰,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지각된 위험, 예방행동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2-0404).

** (miyou@swu.ac.kr)

1. 서론

코로나19는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눈, 코 등의 점막으로 침투됨으로써 전염되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사람과의 최소한의 접촉을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Lee, 2020). 특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국민 대다수가 여러 차례의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예방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 여부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방역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ng, Jeon, & Cho, 2021)는 점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참여토록 할 것인가는 방역당국의 주요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감염병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을 중심으로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건강신념모델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과 같은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예방행동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장애 그리고 자기효능감이라는 주요 변인들 통해 개인이 어떻게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Janz & Becker, 1984; Kirscht et al., 1966; Lee, et al., 2008; Rosenstock et al., 1988). 더불어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서도 개인의 보호행동은 직면한 위협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에 대한 위협 평가(threat appraisal)와 특정 보호행동이 그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평가(coping appraisal)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Floyd et al., 2000; MacDodell et al., 2000; Rogers, 1983)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현되고 촉진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Birmingham et al., 2015; Rintamaki & Yang; 2014; Carcioppolo et al., 2013; Ort & Fahr, 2018). 이외에도,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Ajzen, 1991), 이는 다양한 건강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적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Babrow, Black, & Tiffany, 1990; Doll & Orth, 1993; Godin et al., 1992; McCaul et al., 1993; Norman & Conner, 1993).

최근에는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기존 이론에서 제시된 주요 변인들에 정서적 변인(Kim, 2022; Yang, Sohn, & Cho, 2021; Jang & Lee, 2021;

Jo & Choi, 2021; Heo, 2022), 건강통제변인 (Jeong, 2021), 신뢰(Cabrera-Alvarez et al., 2022; Min et al., 2020; Ye & Lyu, 2020), 사회적 낙인(Kim, Yoon, & Sohn, 2021; Hong, Jeon, & Cho, 2021) 등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확장시키거나(Kim, Yoon, & Sohn, 2021; Yang, Sohn, & Cho, 2021; Jeong, 2021; ; Hong, Jeon, & Cho, 2021) 기존 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결합시킴으로써 (Kim, 2022; Choi, 2022)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건강신념 변인들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차원의 변인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관계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낙인(Kim, Yoon, & Sohn, 2021; Hong, Jeon, & Cho, 2021), 정부신뢰(Ye & Lyu, 2020), 사회자본(Barrios et al., 2021; Khin et al., 2022)과 같은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행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및 지각된 이익과 장애 등 개인적 차원의 건강신념 변인들에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추가하여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함께 점검하였을 뿐,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점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어떻게 개인의 질병 관련 인지에 영향을 미쳐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 요인의 역할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는 기존의 감염병인 사스(SARS)에 비해 감염 속도도 빠르고, 환자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파되며,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확산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는다(Choi, 2021). 특히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는 누가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특성을 갖는다(Choi, 2022). 또한, 코로나19는 암이나 심장병, 뇌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개인적인 위험을 넘어서서 사회적·국가적 위험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위험 대응과 관리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는 물론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은 물론 코로나 대처에 대한 효능감 및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함으로써 이를 대처하거나 극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촉진시켜 위험을 극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18). 따라서 사회 내에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서 특정 위험상황에서의 위험인식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

도 달라질 수 있다. 특정 행위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따라야 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고 믿을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일정 정도의 예방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개인은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방행동을 적극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믿을수록 집단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더 많이 몰입하고 필요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 (Stajkovic, et al., 2009)는 점에서 집단 효능감 역시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 상황에서 집단이 공유하는 목표와 과업을 함께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집단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Lee & Choi, 2014).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이 크고, 이에 기반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가 그 위

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집단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일부 서구 국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필품이나 충기류를 사재는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혼란없이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큰 혼란없이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Yang & Kim, 2020).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잘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인 ‘사회신뢰’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집단 효능감’은 코로나 발생 초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에서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인지적 차원의 변인인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에 그리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해봄으로써 사회신뢰 및 집단효능감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인지

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 관계 요인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로써 감염병 예방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정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효과적인지 이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신뢰

사회신뢰란 사회구성원들이 타인에 대해서 갖는 집합적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타인이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Park & Kim, 2006). 유사한 맥락에서,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신뢰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사회신뢰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시 어떤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서로가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며,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Park, et al., 2021). 또한,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회신뢰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로 규정하면서(Park & Kim, 2006;

Lee, 2010), 합리적 계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상호성의 규범, 즉 일반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신뢰의 유형에는 보편적 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가 있다(Moon, 2019). 보편적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한 신뢰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를 말한다(Kim, 2010). 즉, 이는 개인이 신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Uslander, 2002). 이러한 보편적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라고도 불리우며, 공동체 내에서 폭넓은 교류와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자본으로 간주된다. 이에 비해 특정화된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서(Park, 2010), 두터운 신뢰라고도 불리운다. 특정화된 신뢰는 그 대상에 대한 결속력과 심리적 유대감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신뢰의 대상이 외부로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간혹 편가르기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여 공동체의 교류와 협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Park & Kim, 2006).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 신뢰의 두 유형 중 주로 일반화된 신뢰를 사회 신뢰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신뢰를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신뢰는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호혜성과 사회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들이 집단적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된다(Torsvik, 2000). 즉,

사회신뢰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도 내에 속해 있을 때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된다(Kim & Kim, 2018). 이러한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접근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시민적 행동에 대한 참여를 더 높임으로써(Lee, 2006) 특히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문영세(Moon, 2019)도 사회신뢰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개방적이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스톰카(Stormpka, 1999)도 신뢰가 개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결사체에 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토록 만들며, 개인의 공동체와의 결속력 및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또한 정치적·경제적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문제 해결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기든스(Giddens, 1991)는 특히 위험사회에서 사회신뢰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신뢰가 위험을 극복하고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회내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사회를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여러 측면에서 안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7).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

워크, 참여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으로써 신뢰가 삶의 만족 및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황성호와 이희선(Hwang & Lee, 2019)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 및 네트워크와 더불어 사회신뢰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자명 등(Lee, et al., 2017)도 신뢰와 안전에 대한 지각과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가 청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신뢰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통해 자기 확신, 나아가 성취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발전될 수 있다(Oh, 2017). 즉, 사회신뢰와 같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Hwang & Lee, 2018). 많은 연구들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Hwang & Lee, 2019; Lee, 2017; Lee, et al., 2017), 신뢰는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참여에 대한 만족과 사기를 높임으로써 다시 유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edman et al., 1995). 예를 들어, 이신숙(Lee, 2017)은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점검한 결과, 신뢰감 형성, 사회형성,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호혜적 규범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문제해결력과 긍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사회 신뢰가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자명 등(Lee, et al., 2017)이 청년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한 연구에서도 신뢰와 안전에 대한 지각 및 사회조직에 대한 믿음은 청년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신뢰는 위험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1). 위험인식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위험이 어떻게 범주화되고 일상에 압박감을 주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Douglas & Wildavsky, 1982), 특히 사회적 관계와 대인간의 상호작용은 위험인식을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Renn, 2011). 따라서 개인이 사회내 다른 구성원들을 믿고자 하는 경향인 사회신뢰는 특정의 사회적 위험상황에서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조건없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높은 정도의 낙관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Siegrist, 2000). 따라서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사회 신뢰와 위험인식 간에 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An, et al., 2019; Lee, 2018; Siegrist, et al., 2005). 예를 들어, 이재완(Lee, 2018)이 사회신뢰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자연재해, 기술적 재난, 경제적 위험, 사회해체 위험, 건강 위험의 모든 위험요소를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장노년층의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한 안순태 등(An,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네트워크와 더불어 사회적 신뢰가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효능감

반두라(Bandura, 1977)가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제시한 이래로, 이 개념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아 집단 구성원으로 행동한다(Bandura, 2002)는 점에서 개인의 행동을 단순히 자기효능감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Park, et al., 2019). 즉,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andura, 1997). 이에 집단에 속한 개인의 집단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반두라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다(Bandura, 1982; 1995; 1997).

반두라(Bandura, 1995; 1997)에 의하면, 집단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이익을 공통된 의제로 만들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일련의 행위를 조직화하면서 집단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집단 능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특정한 과업에 대한 개인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면 집단효능감은 집

단의 특정 과업에 대한 집단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Bandura, 1982) 점에서 집단효능감은 개인차원의 효능감을 집단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집단효능감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고에 근거하여, 집단이 문제해결과 정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2002). 이러한 집단효능감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합산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집단 구성원 상호 간에 인지하는 통합적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Bandura, 1997), 따라서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성과를 예측할 때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기효능감의 총합보다 더 우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라 할 수 있다(Park & Paik, 2006).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경험을 통한 대리 학습, 사회적 설득, 그리고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서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Bandura, 1997). 즉, 집단의 성공에 대한 경험은 집단효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실패의 경험은 집단효능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집단의 성공에 대한 대리학습은 집단효능감을 높이지만 다른 집단의 실패에 대한 간접 경험은 집단효능감 떨어뜨린다는 것이다(Goddard, et al., 2004). 또한, 집단 외부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과 더불어 집단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집단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집단효능감이 높아지지만 부정적이면 낮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집단의 성공과 실패의 경

험에 대한 선택적 기억은 집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집단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집단효능감이 높아지지만, 집단정서가 부정적이면 집단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콜레트소우와 맨시(Koletsou & Mancy, 2011)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집단에 대한 신뢰(Gaertner, et al., 1996)를 집단효능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집단신뢰는 '집단 구성원들간에 상호 공유된 집단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서(Dirks, 1999), 집단의 기능이나 능력에 대한 집합적인 믿음인 집단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Luhmann, 1988). 또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나 업무상의 갈등이 신뢰와 같은 정서적 결속력을 통해 극복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은 집단으로서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집단신뢰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집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eutsch, 1973; Dirks & Ferrin, 2001).

많은 연구들은 효능감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Campbell & Jovchevitch, 2000; Smith, Ferrara & Witte, 2007), 반두라(Bandura, 1997)는 효능감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스테이

코빅 등 (Stajkovic et al., 2009)도 집단 구성원의 높은 집단효능감이 집단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믿을수록 집단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더 많이 몰입하고 필요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집단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집단의 공유 목표와 과업을 함께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집단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어렵다(Lee & Choi, 2014).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교육, 스포츠, 기업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효능감의 역할이 점점되었으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집단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Gully et al., 2002; Lindsley et al., 1995; Stajkovic et al., 2009; Whitney, 1994).

그러나 집단효능감이 집단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는 집단효능감이 집단성과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Park & Paik, 2006; Tasa & Whyte, 2005). 집단 구성원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효능감을 갖고 있을 경우, 구성원들은 주어진 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자원을 덜 투자하거나 노력을 덜 하게 될 수 있으며, 실패를 경험했

을 때에도 자기보호적인 귀인을 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집단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타사와 화이트(Tasa & Whyte, 2005)는 효능감이 낮을 때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Bandura, 1997), 학습된 무기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 효능감이 너무 높아도 과거 성공으로 인한 일종의 타성(Miller, 1994)이나 위험에 대한 무감각(Whyte et al., 1997)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중간정도의 효능감이 오히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원우와 백연정(Park & Paik, 2006)도 집단효능감과 집단성과간의 역 U자형 관계를 지지하면서, 집단효능감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집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예방행동 결정요인으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은 건강 관련 행동 및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 다양한 이론에서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돼 왔다. 먼저, 건강신념모델은 질병에 대한 개인의 예방행동이나 건강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

되어 온 모델로서 (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인간의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건강신념모델에서는 인간이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일정한 신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면서 (Rosenstock, Stretcher, & Becker, 1988), 이러한 건강신념변으로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과 행동평가(behavior evaluation)를 제시하고 있다(Becker, 1974; Janz & Becker, 1984; Kirscht et al., 1966; Lee, et al., 2008). ‘지각된 위협’은 특정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이 초래하는 결과의 심각성인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 및 감염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 두 하부개념으로 구성된다. ‘행동평가’란 건강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로서, 건강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과 건강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심리적 장벽 등에 대한 평가인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의 두 개념으로 설명된다.

건강신념모델 연구에서는 이들 건강신념 변인들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예방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취약성과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예방행동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4; Lin et al., 2019). 2000년대 이전의 건강신념모델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가 지각된 취약성이나 지각된 심각성과 같은 지각된 위협보다 예방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나(Jo et al., 2004), 최근에 이루어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지각된 이익과 더불어 지각된 취약성이 예방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지각된 심각성도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au et al., 2020). 이렇듯 건강신념모델에서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과 같은 지각된 위협은 행동평가 요인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건강신념모델에서는 지각된 위협과 행동평가만으로 개인의 건강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인지이론으로부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념을 도입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했다. 특히,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인 확장된병행과정모델 (EPPM: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에서 자아효능감이 지각된 위협과 더불어 건강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면서(Armitage & Conner, 2001; Witte & Allen, 2000), 건강신념모델 연구에서도 점차 주요 변인으로 고려해왔다(Lin, Simoni, & Zemon, 2005).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자기 행동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Bandura, 1995), 개인은 특정 상황에 직면하여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회피하지만, 이를 대처

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Bandura, 1980).

자기효능감 개념을 주창한 반두라(Bandura, 1995)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고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건강 촉진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질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만으로 사람들은 건강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동반될 때만이 건강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면서(Witte, 1992, 1994) 자기효능감은 건강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Chang & Shim, 2013; Tuma et al., 2002). 이에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질병 관련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점검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Witte & Allen, 2000; Gore & Bracken, 2005; Armitage & Conner, 2000; Yoo, Park, & Jin, 2016). 또한 건강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도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일종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으로써(Ajzen, 1991), 자기효능감을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Sang et al., 2015)

또한,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도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예측하기 위

한 이론적 틀로 활용돼 왔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서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동기이론에서는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대상에 대한 ‘위협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평가’(coping appraisal)가 위협에 대한 보호동기를 발생시켜 그에 합당한 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예방행위가 어떻게 촉진되는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위협평가’란 현재 직면한 위협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 두 개념으로 구성되며, ‘대처평가’란 위협에 대한 특정의 보호행동이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효능과 더불어 대응효능 및 대응비용을 주요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Floyd et al., 2000). 보호동기이론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사람들의 보호행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대응효능,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보호동기를 증가시키는 반면, 대응비용 인식은 보호동기를 감소시켰으며, 보호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기효능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Floyd et al., 2000; Milne et al., 2000; De Hoog et al., 2007). 이러한 보호동기이론은 암 같은 만성질환 뿐 아니라 사스, 신종독감, 조류독감과 같은 각종 감염병 관련 이슈에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질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Birmingham et al., 2015; Rintamaki

& Yang, 2014; Carcioppolo et al., 2013; Ort & Fahr, 2018).

최근에는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서도 지각된 위협과 자기효능감이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을 포함하는 지각된 위협이 다른 건강신념 변인 및 추가변인들과 더불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으로써 지각된 위협이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으로 확인시켜주었다(Jang & Lee, 2021; Jeong, 2021; Hong, Jeon, & Cho, 2021). 예를 들어, 홍다예·전민아·조창(Hong, Jeon, & Cho, 2021)가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 그리고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와 같은 건강신념변인들에 낙인 및 사회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변인을 추가하여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점검한 결과,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 같은 지각된 위협이 낙인위험, 지각된 이익 및 사회적 규범과 더불어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신념변인들에 건강통제소재변인을 추가하여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점검한 정현주(Jeong, 2021)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은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손소독제 사용이라는 예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됨으로써 지각된 위협이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규범 및 태도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앙과 그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Ang et al., 2021)에서는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인지된 행위통제(자기효능감)가 미국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김용범·윤태훈·손애리(Kim, Yoon, & Sohn, 2021)도 주관적 규범 및 예방행동의도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코로나19 예방행동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여혜민(Yeo, 2021)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도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결합건강신념모델과 위협정보탐색 처리과정모형의 주요 변인들을 결합하여 코로나19 예방행동 예측 변인을 점검한 김대중(Kim, 2022)도 지각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규범과 정보추구행위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보호동기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변인들을 결합하여 코로나19 예방행동 예측변인을 점검한 황우념과 이정기(Huang & Lee, 2022)는 자기효능감이 뉴스이용과 더불어 한국인과 대만인의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동시에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예방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지각된 위협과 자기효능감이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제시해준다.

4)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

(1) 사회신뢰가 집단효능감, 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서로가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며,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Park, et al., 2021). 에드몬슨(Edmonson, 1999)은 사회구성원들간에 형성된 신뢰는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이는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토록 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집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콜레투와 맨시(Koletou & Mancy, 2011)도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집단에 대한 신뢰(Gaertner, et al., 1996)를 집단효능감을 형성하는 선행요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을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단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도 높을 것이다.

특히, 사회신뢰는 위험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1).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조건없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높은 정도의 낙관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Siegrist, 2019). 따라서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신뢰와 위험인식간에 부적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Siegrist, et al., 2005; Smith & Adam, 2018). 사회신뢰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점검한 Ye & Lye (2020)의 연구에서도 정부나 미디어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코로나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Hwang & Lee, 2018). 여러 연구들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Hwang & Lee, 2018; Lee, 2017; Lee,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3.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을 것이다.

신뢰는 개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에 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촉진시키며(Stormpka, 1999), 경험과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Luhmann, 1979), 계약과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협동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Offe, 1996) 문제해결을 촉진시킨다. 특히 기든스(Giddens, 1991)는 위험이 만연한 사회에서 신뢰는 그 위험을 극복하고 존재론적 안정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쇼트(Short, 1980)는 신뢰를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확실하거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드는 행위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사회신뢰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간에 함께 연대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토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회적·국가적 감염병 위험상황에 직면하여,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기대와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시킬 것이며, 이로써 예방행동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람들은 자신이 일정 정도의 예방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이 높을 때에는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방행동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킨과 그 동료들(Khin et al., 2022)이 사회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사회신뢰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신뢰가 손씻기 같은 위생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4.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다.

(2) 집단효능감이 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효능감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고에 근거하여, 집단이 문제해결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믿음(Bandura, 2002)이라 할 수 있다. 콜레트소우와 맨시(Koletsou & Mancy, 2011)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집단에 대한 신뢰(Gaertner, et al., 1996)를 집단효능감을 형성하는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egrist, et al., 2005; Smith & Adam, 2018). 즉, 사회신

뢰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연재해, 기술적 재난, 경제적 위험, 사회해체 위험, 건강 위험의 모든 위험요소를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Lee, 2018). 따라서 신뢰에 기반한 집단 효능감 역시 위험인식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즉,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집단이 사회 내 여러 위험요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내 여러 위험요소들을 덜 위험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즉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5.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더 낮게 지각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특정한 과업에 대한 개인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면, 집단효능감은 집단의 특정 과업에 대한 집단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82).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의식이나 자아존중감도 높으며,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나 존재를 더 높게 평가하며(March & Simon, 1958). 그 결과 자기 집단을 타 집단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성취의욕도 높아지고 자신의 성취기회를 제공해주는 자기 집단에 대해서 애착과 동일체

의식을 느끼게 됨으로써(Brown, 1969) 집단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또는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같이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회 내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집단이 그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Jin, 2021). 개인이 아무리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및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가 사회 및 조직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일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조직이 이 이슈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 국민 등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를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개인들로 하여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6.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효능감이 개인적, 집단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Campbell & Jovchevitch, 2000; Smith et al., 2007). 반두라(Bandura, 1997)도 효능감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스테이코빅과 그 동료들(Stajkovic, et al., 2009)도 집단 구성원의 높은 집단 효능감이 집단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믿을수록 집단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더 많이 몰입하고 필요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집단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행위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구성원들의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지표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rowning & Cagney, 2002; Cohen et al., 2006),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핵 예방 행위를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연구(Lee, 2020)에서도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 방역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7.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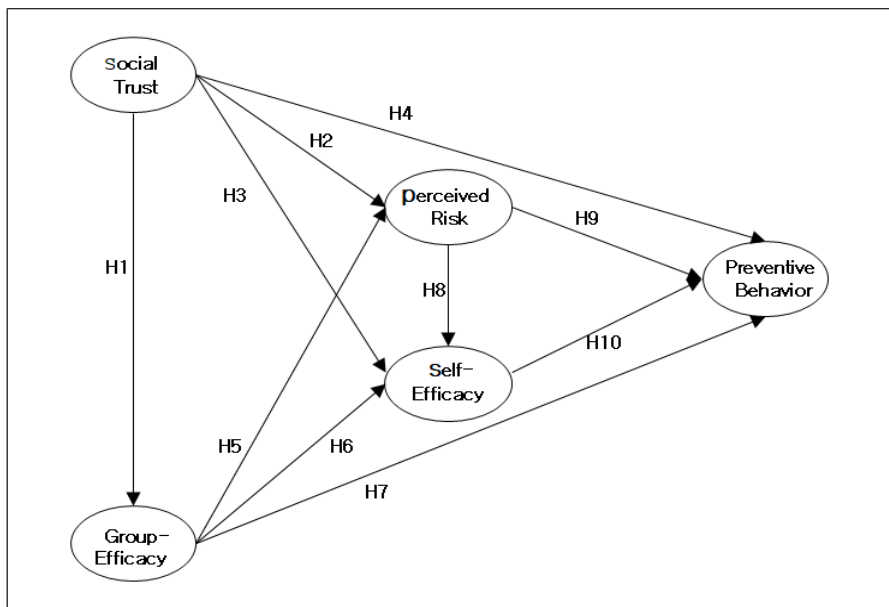
(3) 위험지각과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비롯하여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병행과정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과 같은 이론들을 통해서 설명돼 왔다. 이들 모델에서는 질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개인의 질병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Janz & Becker, 1984; Rogers, 1983; Witte, 1992, 1994),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즉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이 높을수록 건강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Harrison, et al., 1992; Janz & Becker, 1984; Jo, et al., 2004; Lee, et al., 2014; Zimmerman & Vemberg, 1994). 즉 특정 질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이나 심각성 등 위험지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하도록 만듦으로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된다는 것이다(Park, et al., 2021).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여러 연구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예방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으며(Qin et al., 2021), 지각된 위험은 예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Wise et al., 2020; Choi, 2021).

또한, 여러 연구들은 지각된 위험과 함께 자기효능감도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Chang & Shim, 2013; Schwarzer &

Fuchs, 1995). 질병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질병예방 행동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동반될 때 높은 예방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imal, et al., 2009).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다(Stajkovic & Luthans, 1998)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양과 그 동료들(Ang et al., 2021)은 자기효능감이 미국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하였으며, 김슨과 그 동료들(Gibson et al., 2021)도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는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Bandura, 1997)는 점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을 건강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건강신념모델의 예측변인들이 건강 행동 또는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간주한다(Basen-Engquist, 1992; Jang, 2021; Mattson, 1999; Lee, et al., 2005; Winfield & Whaley, 2002; Zhang, et al., 2020). 즉,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위험과 같은 기존 건강신념모델의 예측변인들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주신옥(Joo, 2021)도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코로나19 위험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위험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



〈Figure 1〉 Research Model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5.143.159.160 at Thursday, March 9, 2023 9:29 AM

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하여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8.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9.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다.

연구가설 1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다.

3.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감염병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고자 오미숙과 오미영(Oh & Oh, 2020)의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 중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성별, 연령별, 지

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SMS나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물은 후, 참여를 허락한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위한 링크가 전송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362명 중에서 응답을 완료한 총 350명의 설문지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50.9%, 여성이 49.1%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8.6%, 30대가 18.9%, 40대가 22.0%, 50대가 23.1%, 60대 이상이 17.4%를 보여 전 연령대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표본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3.7%였으며, 2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이 47.4%,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이 26.9%, 800만원이상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고졸이하가 13.1%, 대학재학 또는 중퇴가 7.4%, 대학졸업이 65.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13.7%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졸업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은 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7.7%, 전업주부 12.0%, 회사원 46.3%, 자영업 및 프리랜서 12.0%, 전문직 8.9%, 무직이 6.6%, 기타가 6.6%로 회사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변인 측정

(1) 사회신뢰

사회신뢰란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해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Fukuyama,

1995).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정직하고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양미라와 김해숙(Yang & Kim, 2020)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신뢰를 측정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람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고 있다” 세 항목을 사용하였다.

(2) 집단효능감

집단효능감이 집단의 특정 과업에 대한 집단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는 반두라(Bandura, 1982)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리이처와 하스램(Reicher & Haslam, 2006) 그리고 유선욱 외(Yoo, et al., 2014)가 제시했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국민이 모두 협력하면 코로나19

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세 항목을 사용하였다.

(3) 지각된 위험

위험지각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을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 두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 두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라이멀과 리얼(Rimal & Real, 2003)과 잔과 베커(Janz & Becker, 1984)가 사용한 문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지각된 취약성은 “코로나19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 두 항목을 통해 그리고 지각된 심각성은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코로나19는 나에게 위험하다” “코로나19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 세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 또는 신념이라는 반두라(Bandura, 1977)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 또는 믿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Jo & Yoo, 2011; Rimal & Real, 2003)를 참고하여, “나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와 행동지침을 철저히 할 자신이 있다,”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잘 할 수 있다” 세 항목을 사용하였다.

(5) 예방행동

본 연구에서 예방행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수칙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제시하였던 예방수칙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흐르는 물에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외출 자제하기,”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참여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접촉 피하고 일정 거리 유지하기,” “코로나19 증상 시 집에서 휴식 취하기”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통해 예방행동을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점검할 모델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 적합도는 Chi-square=379.344, df=171, Chi-square/df=2.218, RMSEA=.059,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Standardized β	AVE	CR	Chronbach α
Social Trust	ST1	.890	.777	.913	.912
	ST2	.907			
	ST3	.847			
Group- Efficacy	GE1	.848	.803	.942	.939
	GE2	.900			
	GE3	.910			
	GE4	.925			
Perceived Risk	PR1	.494	.473	.809	.822
	PR2	.462			
	PR3	.727			
	PR4	.859			
	PR5	.801			
Self-Efficacy	SE1	.910	.740	.895	.894
	SE2	.835			
	SE3	.834			
Preventive Behavior	PB1	.684	.478	.844	.848
	PB2	.829			
	PB3	.730			
	PB4	.699			
	PB5	.549			
	PB6	.626			

CFI=.957, TLI=.947, NFI=.925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일반적으로, Chi-square/df가 3미만, CFI, TLI, NFI가 0.9 이상 그리고 RMSEA가 0.1이하면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표준적재량이 0.5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 그리고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집중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표준적재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VE값이 .47~.80, 개념신뢰도 값이 .80~.9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가 대체로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변인과 다른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포멜과 락커(Fornell & Larcker,

1981)는 각 변인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커야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AVE의 제곱근이 변인의 상관계수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α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85~.9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모델 적합도 및 가설 검증

(1) 모델 적합도 검증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버전 22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카이제곱값을 확인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df=179)=558.739, $p=.00$, Chi-square/df=3.12). 카이제곱값은 표본의 크기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숫자,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카이제곱값 이외에 근사적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Kline, 2011)는 점에서 모형의 근사적 적합도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and Square Root of AVE

	Social Trust	Group-Efficacy	Perceived Risk	Self-Efficacy	PreventiveBehavior
Social Trust	.881				
Group-Efficacy	.350**	.896			
Perceived Risk	.086	.055	.687		
Self-Efficacy	.351**	.532**	.272**	.860	
Preventive Behavior	.264**	.280**	.326**	.636**	.691

Diagonal line on the top displays square root of AVE, ** $p<.01$

지수를 확인하였으나, 이 역시 일부 지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MR=.08$, $RMSEA=.08$, $CFI=.92$, $TLI=.90$, $NFI=.88$). 이에,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여 모델을 수정한 후 다시 분석한 결과, Chi-square ($df=179$)= 363.65 , $p<.001$, Chi-square/ $df=2.17$, $RMR=.06$, $RMSEA=.06$, $CFI=.96$, $TLI=.95$, $NFI=.93$ 으로 모든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모델의 적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가설1>인 사회신뢰가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39$, $t=6.87$, $p<.001$),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또한, 사회신뢰가 지각된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사회신뢰는 지각된 위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 $t=1.50$, $p>.10$). 이로써 <연구가설2>는 기각되었다. 더불어, 사회신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사회신뢰는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7$, $t=3.17$, $p<.01$),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역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가설3>은 채택되었다. 또한, 사회신뢰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사회신뢰는 코로나19

예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eta=.04$, $t=.85$, $p>.05$),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4>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집단효능감이 지각된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집단효능감은 지각된 위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eta=.04$, $t=.64$, $p>.10$).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5>는 기각되었다. 또한, 집단효능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48$, $t=8.83$, $p<.001$),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6>은 채택되었다. 집단효능감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집단효능감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5$, $t=-2.54$, $p<.01$),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는 <연구가설7>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위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지각된 위협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 $t=4.77$, $p<.001$). 그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8>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위협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지각된 위협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eta = .16, t=2.99, p<.01$).
 이로써,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
 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9>역시 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코로나19 예
 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자기효능
 감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eta = .75,$
 $t=9.13, p<.001$). 그리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잘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로써 <연구가설 9> 역시 채택되
 었다. 모델의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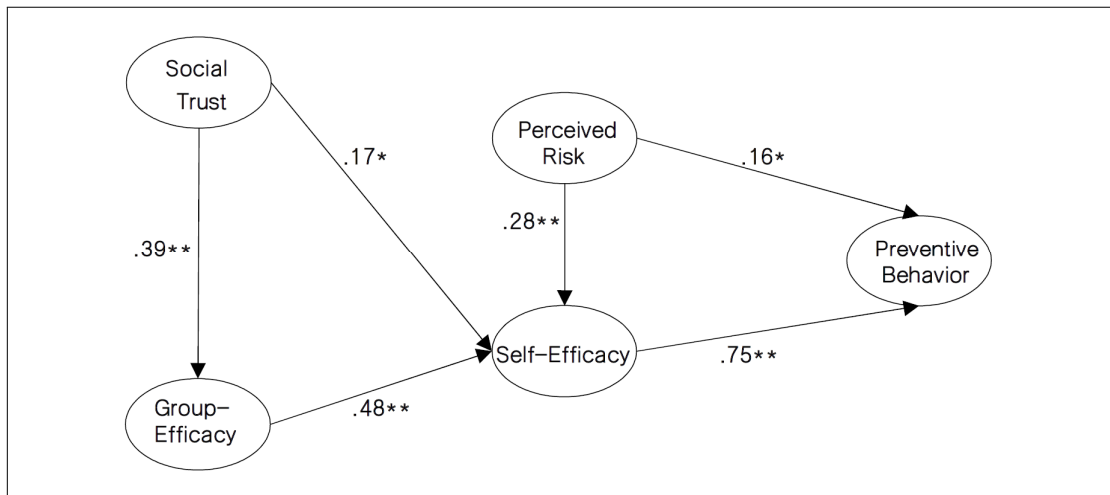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코
 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봄으
 로써 일반적인 질병과는 차별화되는 감염병, 특

<Table 3> Path Analysis

Path	Standardized β	S.E.	t-value	Hypothesis Test
social trust \rightarrow group-efficacy	.39	.05	6.87**	<H1> adopted
social trust \rightarrow perceived risk	.10	.03	1.50	<H2> rejected
social trust \rightarrow self-efficacy	.17	.04	3.17*	<H3> adopted
social trust \rightarrow preventive behavior	.04	.03	.85	<H4> rejected
group-efficacy \rightarrow perceived risk	.04	.04	.64	<H5> rejected
group-efficacy \rightarrow self-efficacy	.48	.05	8.83**	<H6> adopted
group-efficacy \rightarrow preventive behavior	-.15	.04	-2.54*	<H7> rejected
perceived risk \rightarrow self-efficacy	.28	.09	4.77**	<H8> adopted
perceived risk \rightarrow preventive behavior	.16	.07	2.99*	<H9> adopted
self-efficacy \rightarrow preventive behavior	.75	.07	9.13**	<H10> adopted

** $p<.001, *p<.01$



<Figure 2> Path Analysis

히 초유의 사회적·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킨 감염병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예방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기존이론들에서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여 점검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과 코로나19 예방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위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위험은 자기효능감에 그리고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으나 코로나19 예방행동은 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기존의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지각된 위험

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지각된 위험에는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조건없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Siegrist, 2019),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낙관적으로 믿는 경향인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을 감소시킨다(Siegrist, et al., 2005)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은 지각된 위험 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예방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이라는 것을 제시해준다.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두 변인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예방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질병의 경우, 이에 대한 예방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쉽게 활성화될 수 있으나, 감염병,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감염병의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질병과 달리 자기효능감이 쉽

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켜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은 예방행동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신뢰는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Lee, 2017; Lee, et al., 2017; Hwang & Lee, 2018; Bourdieu, 1985), 신뢰는 특히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Tedman, et al., 1995),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자의 역량을 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Deutsch, 1973; Dirks & Ferrin, 2001). 이렇듯 사회신뢰는 감염병을 비롯하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강화시킬 것인가는 정부를 비롯한 보건당

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신뢰가 하루 아침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랜시간 사회구성원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과 소통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형성된 유대감에 근거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신뢰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는 집단효능감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positive)이라기 보다는 부정(negative)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으나, 분석결과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코로나19 예방행동을 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효능감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효능감이 너무 높아도 과거 성공으로 인한 일종의 타성(Miller, 1994)이나 위협에 대한 무감각(Whyte et al., 1997)으로 인해 마냥 긍정적인 성과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되기도 하였다(Tasa & Whyte, 2005). 박원우와 백연정(Park & Paik, 2006)도 집단효능감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집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집단효능감과 집단성과간에 역 U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집단효능감과 코로나19 예방행동 간의 부적인 관계 역시 우리사회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집단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곤

이 예방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모한 기대와 믿음이 형성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과도한 집단효능감은 오히려 부정적인 집단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나친 집단효능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의 집단효능감이 예방행동을 이끄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개인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단효능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예방행동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Armitage & Conner, 2001; Witte & Allen, 2000).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점검하였을 뿐,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예방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특성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개인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촉진제인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감염병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감염병 위험상황을 관리하는 방역당국에게 어떻게 사회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켜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 지각된 이익과 장애 등)에 사회적 낙인, 사회적 규범 신뢰 등 사회적 관계 요인들을 추가하여 이들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 변인이 감염병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예방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감염병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쳐 예방행동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였으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백신 및 치료제 사용이 가능한 현 시점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활용가능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개인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의 변인으로서 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변인 이외에 지각된 이익과 장애와 같이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점검한다면 좀 더 설명력이 높은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활용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신뢰와 집단효능감이 지각된 위험 및 자기효능감 이외의 다른 개인의 인지적 변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신뢰 및 집단효능감의 영향력을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n, S., Jeong, J. S., & Chung, S. (2019).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risk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effect of media environment, age-friendly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role of ag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108, 40-77.
- Ang, T., Wei, S., & Arli, D. (2021). Social distancing behavior during COVID-19: A TPB perspective.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39(6), 809-824.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Babrow, A. S., Black, D. R., & Tiffany, S. T. (1990). Beliefs, attitudes, intentions, and a smoking cessation program: A planned behavior analysis of campaign development. *Health Communication*, 2, 145-163.
- Bae, N., Park, S., & Lim, S.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adherence to Fecal Occult blood testing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mong adults in the Republic of Korea.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8(1), 72-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0). Gau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judgment and a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2), 263-268.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 Bandura, A. (2002). Social cognitive theory in cultural context. *Applied Psychology*, 51, 269-290.
- Barrios, J. M., Benmelech, E., Hochberg, Y. V., Sapienza, P., & Zingales, L. (2021). Civic capital and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3, 1-11.
- Basen-Engquist, K. (1992). Psychosocial predictors of "safer sex" behaviors in young adults.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4(2), 120-134.
- Becker, M. H.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behavior* (Ed). Thotofore: Chales B. Slack.
- Birmingham, W., Hung, M., Boonyasiriwat, W., Kohlmann, W., Walters, S., Burt, R., Stroup, A., Edwards, S., Schwartz, M., Lowery, J., Hill, D., Wiggins, C., Higginbotham, J., Tang, P., Hon, S., Franklin, J., Vernon, S., & Kinney, A. (2015).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in promoting colorectal cancer screening. *Psycho-Oncology*, 24, 1265-1278.
- Brown, M. E. (1969). Identification and some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3), 346-355.
- Browning, C. R., & Cagney, K. A. (2002). Neighborhood structural disadvantage, collective efficacy, and self-rated physical health in an urban sett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4), 383-399.
- Cabrera-Alvarez, P., Hornsey, M. J., & Lobera, J. (2022). Determinants of self-reported adherence to COVID-19 regulations in Spain: Social norms, trust and risk percep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38, 1-9.
- Campbell, C., & Jovchelovitch, S. (2000). Health, community and development: Towards a social psychology of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255-270.
- Carcioppolo, N., Jensen, J., Wilson, S., Collins, W., Carrion, M., & Linnemeier, G. (2013). Examining

- HPV threat-to-efficacy ratios in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Health Communication*, 28(1), 20-28.
- Chang, J., & Shim, J. (2013). Testing the links between health belief model, optimistic bias,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case study of foot-and-mouth disease, mad cow disease, and H1N1 flu.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1), 111-137.
- Choi, B. H. (202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general public's intention to prevent COVID-19. *Crisisomy*, 17(3), 39-51.
- Choi, J. S. (2022). The effects of COVID-19 risk perception on danger control and fear control: Moderating effects of efficacy and cost percept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6(1), 139-172.
- Cohen, D. A., Finch, B. K., Bower, A., & Sastry, N. (2006). Collective efficacy and obesity: The potential influence of social factors on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62(3), 769-778.
- De Hoog, N., Stroebe, W., & De wit, J. (2007). The impact of vulnerability to and severity of a health risk on processing and acceptance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A meta-analysi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 258-285.
- Deutsch, M.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irks, K. T. (1999).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trust on work group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445-455.
- Dirks, K. T., & Ferrin, D. L. (2001). The role of trust in 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12, 450-467.
- Doll, J., & Orth, B. (1993). The Fishbein and Ajzen theory of reasoned action applied to contraceptive behavior: Model variants and meaningfuln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395-415.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How can we know the risks we face? Why risk selection is a social process. *Risk Analysis*, 2(2), 49-58.
- Edmondson, A. (1999). Psychological safety and learning behavior in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 350-383.
- Floyd, D., Prentice-Dunn, S., & Rogers, R. (200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407-42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82-388.
- Fukuyama, F. (1995). *Trust: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 Gaertner, S. L., Dovidio, J. F., & Bachman, B. A. (1996). Revisiting the contact hypothesis: The induction of a common ingroup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271-290.
- Gibson, L. P., Magnan, R. E., Kramer, E. B., & Bruan, A. D. (2021).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alysis of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intention behavior gap.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55(8), 805-81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ddard, R. D. (2001). Collective efficacy: A neglected construct in the study of schools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3), 467-476.
- Goddard, R. D., Hoy, W. K., & Hoy, A. W. (2004). Collective efficacy beliefs: Theoretical developments, empirical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Educational Researcher*, 33(3), 3-13.
- Godin, G., Valois, P., Lepage, L., & Desharnais, R. (1992). Predictors of smoking behavior.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1335-1343.
- Gore, T. D., & Bracken, C. C. (2005). Testing the theoretical design of a health risk message: Reexamining the major tenets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Health Education &*

- Behavior*, 32(1), 27–41.
- Gully, S. M., Incalcaterra, K. A., Joshi, A., & Beaubien, J. M. (2002). A meta-analysis of team-efficacy, potency, and performance: Interdependence and level of analysis as moderators of observed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819–832.
- Harrison, J. A., Mullen, P. D., & Green, L. W. (1992). A meta-analysis of studies of the health belief model with adults. *Health Education Research*, 7(1), 107–116.
- Heo, E. J. (2022). Factors of the COVID-19 prevention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Application of the expanded health belief mode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6(1), 41–54.
- Hong, D., Jeon, M., & Cho, C. (2021). Predi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in COVID-19 pandemic context: Application of social variables to Health Belief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5), 22–35.
- Hwang, S., & Lee, H.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3(2), 1–36.
- Jang, C. S. (2021). *The effects of media campaigns on the preventive intentions of COVID-19 as cues to action: An extension of HBM based on the mediating role of preventive efficiency and moderating effects of shame*.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 Jang, W., & Lee, S. (202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COVID-19 preventive behavior: 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HBM), media/inter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negative emotions,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20(4), 315–348.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 Behavior*, 11(1), 1–47.
- Jeong, H. (2021). A study on the expected individual behavior for COVID19 prevention on the EHBM(Extended Health Belief Model) and MHLC(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model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9(3), 319–351.
- Jin, B. (2021). The effects of levels of risk perception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 response, and collective efficacy.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 161–190.
- Jo, H. S., Lee, H., Kim, C. B., & Jung, H. (2004). A meta-analysis of health related behavior study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in Korea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69–84.
- Jo, H., & Choi, E.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 preven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4(2), 115–122.
- Joo, S. (2021).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the risk of the COVID19 of air traveller on preventive self-efficacy and risk reducti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ervice*, 36(6), 25–44.
- Khin, Y. P., Matsuyama, Y., & Fujiwara, Y. (2022).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Country-level ecolog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82, 1–10.
- Kim, D. (2022).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for COVID-19 in the prolonged pandemic: Focusing on HBM, RISP, optimistic bias, and emotion. *Locality and Communication*, 26(2), 5–35.
- Kim, J. H., & Kim, K. H. (2018).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economic stability. *Korean Economy Studies*, 36(2), 45–76.
- Kim, J. S. (2011). Effects of trust in generalized others,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civic organizations on the perception of public

-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1–16.
- Kim, Y., Yoon, T., & Sohn, A. (2021).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8(1), 25–36.
- Kirscht, J. P., Haefner, D. P., Kegeles, S. S., & Rosenstock, I. M. (1966). A national study of health belief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r*, 7(4), 248–25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letsou, A., & Mancy, R. (2011). Which efficacy constructs for large-scale social dilemma problems? Individual and collective forms of 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Risk Management*, 13, 184–208.
- Lau, J., Lim, T. Z., Wong, G. J., & Tan, K. K. (2020). The health belief model and colorectal cancer screening in the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Preventive Medicine Reports*, 20, 101223.
- Lee, B. K., Oh, H. J., Shin, K. A., & Ko, J. Y. (2008). The effect of media campaign as a cue to action on influenza prevention behavior: Extending health belief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0(4), 108–138.
- Lee, B., Salmon, C. T., & Witte, K. (2005, May). The effectiveness of entertainment-education as media health campaigns: The effects of entertainment narrative and identification on HIV/AIDS preventive behavior. *Paper Presented to the 55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New York.
- Lee, B., Son, Y., Lee, S., Yoon, M., Kim, M., & Kim, C. (2014).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theory to predict health behavior: A meta-analysis on the health belief model studies in Korea.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8(2), 163–206.
- Lee, D., & Choi, Y. (2014). Intragroup trust and group performance: A mediating role of group efficacy and a moderating role of task interdependence. *Journa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8(1), 187–210.
- Lee, J. (2018).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risk perception: Focused on the Seoul citizens'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8(10), 518–526.
- Lee, J. H. (2006). Trust and civil society: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Americ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5), 61–98.
- Lee, J. W. (2020). Fostering individual overcoming and adaptive behaviors to the COVID-19 Crisis: The role of college students' civic identity, collective efficacy,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ductivity Review*, 34(4), 283–307.
- Lee, J., Gao, H., & Hwang, J. (2017).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ocial capital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perception in early adult period.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397–422.
- Lee, S. (2017). Working elderly persons'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self 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7(2), 555–572.
- Lee, S. I.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ence between general and government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4), 162–203.
- Lin, P., Simoni, J. M., & Zemon, V. (2005). The health belief model, sexual behaviors, and HIV risk among Taiwanese immigrants. *AIDS Education & Prevention*, 17(5), 469–483.
- Lin, T. Y., Chuang, S. T., Huang, S. F., Hsu, H. P., Lu, L. T., & Guo, J. L. (2019). Likelihood of a fecal occult blood test uptake among older adults: Comparison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nd healthcare volunteer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BMC Geriatrics*, 19(1), 51.

- Lindsley, D. H., Brass, D. J., & Thomas, J. B. (1995). Efficacy–performance spirals: A multilevel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645–678.
- Luhmann, N. (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MacDonell, K., Chen, X., Yan, Y., Li, F., Gong, J., Sun, H., Li, X., & Stanton, B. (2013).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based scale for tobacco research among Chinese youth. *Journal of Addiction Research & Therapy*, *4*(3), 1–17.
- March, J. G., & Simon, H. A. (1958).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Mattson, M. (1999).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cation cues to action in the health belief model: HIV test counseling. *Communication Monographs*, *66*(3), 240–265.
- McCaul, K. D., Sandgren, A. K., O'Neill, H. K., & Hinsz, V. B. (1993). The value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rceived control, and self efficacy expectations for predicting health–protective behavior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231–252.
- Miller, D. (1994). What happens after success: The perils of excelle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1*(3), 325–358.
- Milne, S., Sheeran, P., & Orbell, S. (2000). Prediction and intervention in health–relat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1), 106–143.
- Min, C., Shen, F., Yu, W., & Chu, Y.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preventive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Exploring the roles knowledge and negative emotion. *Preventive Medicine*, *141*, 1–7.
- Moon, Y. (2019).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influence factors of social trust. *Social Economy and Policy Studies*, *9*(2), 57–86.
- Norman, P., & Conner, M. (1993). The role of social cognition models in predicting attendance at health checks. *Psychology and Health*, *8*, 447–462.
- Offe, C. (1996). *Trust and knowledge, rules and decision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 Oh, H. (201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health promotion of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6), 357–366.
- Oh, M., & Oh, M. (2020). Influence of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self–efficacy on the risk perception of destination and intention to visi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4*(12), 91–108.
- Ort, A., & Fahr, A. (2018). Using efficacy cues in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is more effective than employing threats: An experimental study of a vaccination intervention against Ebola.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665–684.
- Park, C., & Kim, W. (2006). Generating social trust in Korea: The role of civic society and state institu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0*(2), 149–169.
- Park, S., Zhao, R., & Park, K. (2021).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23*(1), 35–56.
- Park, T. H. (2010). The Influence of values and involvement in voluntary organizations on interpersonal trust: What values and networks are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4*(1), 67–97.
- Park, W., & Paik, Y. (2006). Negative effect of group–efficacy on group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35*(5), 1427–1448.
- Qin, H., Sanders, C., Prasetyo, Y., Syukron, M., & Prentice, E. (2021). Exploring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risk perception and behavior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ease

- 2019(COVID-19) outbreak. *Social Science & Medicine*, 285, 114267.
- Renn, O. (2011). The social amplification/attenuation of risk framework: Application to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2(2), 154-169.
- Rho, B. I., & Shim, H. S.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preschool children's self-efficacy. *Mental Health & Social Work*, 41(1), 90-113
- Rimal, R. N., & Real, K. (2003). Perceived risk and efficacy beliefs as motivators of change: Use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RPA) framework to understand health behavio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3), 370-399.
- Rimal, R. N., Bose, K., Brown, J., Mkandawire, G., & Folda, L. (2009). Extending the purview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 framework: Findings from HIV/AIDS prevention research in Malawi. *Health Communication*, 24(3), 210-218.
- Rintamaki, L., & Yang, Z. (2014). Advanc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hrough the inclusion of response cost measur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9(7), 759-774.
- Rogers, R. (1983).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B. Cacioppo & L. Petty (Eds.), *Social psychophysiology: A sourcebook* (pp. 153-176). London, UK: Guilford.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havior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 354-386.
- Rosenstock, I. M., Strecher, V. J., & Becker, M. H. (1988).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2), 175-183.
- Rosenstock, I. M., Strecher, V. J., & Becker, M. H. (199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HIV risk behavior change. *Preventing AIDS*, US: Springer.
- Sang, Y. M., Lee, J. K., Kim, Y. R., & Woo, H. J. (2015). Understanding the intentions behind illegal downloading: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college students. *Telematics & Informatics*, 32(2), 333-343.
- Schwarzer, R., & Fuchs, R. (1995). Changing risk behaviors and adopting health behaviors: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rt, J. F. (1990). Hazards, risks and enterprise: Approach to science, law, and social policy. *Law and Society Review*, 24(1), 179-198.
- Siegrist, M. (2000).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20(1), 195-203.
- Siegrist, M., Gutscher, H., & Earle, T. C. (2005). Perception of risk: The influence of general trust, and general confidence. *Journal of Risk Research*, 8(2), 145-156.
- Smith, R. A., Ferrara, M., & Witte, K. (2007). Social sides of health risks: Stigma and collective efficacy. *Health Communication*, 21, 55-64.
- Stajkovic, A. D., Lee, D., & Nyberg, A. J. (2009). Collective efficacy, group potency, and group performance: Meta-analyses of their relationships, and test of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 814-828.
- Stormpka, P.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r-Smith, E. E., & Brown, T. N. (2010). Evaluating the health belief model: A critical review of studies predicting mammographic and pap screening. *Social Theory & Health*, 8, 95-125.
- Tasa, K., & Whyte, G. (2005). Collective efficacy and vigilant problem solving in group decision making: A non-linear mode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6(2), 119-129.
- Tedman, S., Thornton, E., & Baker, G. (1995).

-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core beliefs perceived self efficacy in adult with epilepsy. *Seisure*, 4, 221–231.
- Torsvik, G. (200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Rationality and Society*, 12(4), 451–476.
- Tuma, J. N., Smith, S. M., Kirk, R. H., Hagmann, C. E., & Zemel, P. C. (2002). Belief and attitudes of caregivers toward compliance with childhood immunization in Cameroon. *Public Health*, 116(1), 55–61.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ney, K. (1994). Improving group task performance: The role of group goals and group efficacy. *Human Performance*, 7(1), 55–78.
- Winfield, E. B., & Whaley, A. L. (2002). A comprehensive test of the health belief model in the prediction of condom use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8(4), 330–346.
- Wise, T., Zbozinek, T. D., Michelini, G., Hagan, C. C., & Mobbs, D. (2020). Changes in risk perception and protective behavior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Royal Society Open Science*, 7(9). doi:10.1098/rsos.200742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real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 225–249.
- Witte, K. (1994). Fear control and danger control: A test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 *Communication Monographs*, 61, 113–134.
- Witte, K., & Allen, M. (2000). A meta-analysis of fear appeals: Implications for effective public health campaigns.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91–615.
- Yang, J. Y., Sohn, A., & Cho, B. (2021). Effects of pride in K-quarantine on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Health and Social Science*, 28, 25–52.
- Yang, M., & Kim, H. (202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nxiety in pandemics(COVID–19):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tru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1), 309–319.
- Ye, M., & Lye, Z. (2020). Trust, risk perception, and COVID–19 infections: Evidence from multilevel analyses of combined original dataset in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265, 1–10.
- Yi, J., Gao, H., & Hwang, J. (2017).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ocial capital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perception in early adult period.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397–422.
- Yoo, S., Park, H., & Jin, B. (2016).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o protective behavioral intention against the MERS: Examining the moderated effect of subjective knowledge and trust in the government.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8(2), 237–273.
- Zhang, H., Park, J., & Lee, K. (2020).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NS eWOM.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2(2), 265–302.
- Zimmerman, R. S., & Vernberg, D. (1994). Models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Comparison, critique, and meta-analysis. *Advances in Medical Sociology*, 4, 45–67.



The Influence of Social Trust and Group-Efficacy on the Prevention Behavior to COVID-19

•Mi-Young Oh*

Seoul Woman's University

Facing with unprecedented pandemic of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role social relationship variables, such as social trust and group-efficacy, play to promote preventive behavior on COVID-19. It is investigated what impacts social trust and group-efficacy have on the perceived risk and self-efficac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major variables in the previous health related theories, and the preventive behavior. The findings show that social trust has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group-efficacy and self-efficacy, but it has not significant impacts on perceived risk and preventive behavior. In addition, it indicates that group-efficacy significantl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and a negative influence on preventive behavior, but it has not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risk. Furthermore, it shows that perceived risk has significant impact on self-efficacy, and both perceived risk and self-efficac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s on preventive behavior. Th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trust and group-efficacy have indirect influence on preventive behavior via a mediator of self-efficacy, and thus social relationship variables play roles to activate self-efficacy, which promotes preventive behavior of COVID19.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for explaining and promoting the preventive behavior of pandemic.

Keywords: COVID-19, Social trust, Group-efficacy, Self-efficacy, Perceived risk, Preventive behavior

*(miyou@swu.ac.kr)

